

18세기 후반 청조(淸朝)의 의식주 생활문화와 제도에 대한 고찰

- 박지원의 '熱河日記' 중 <渡江錄> · <盛京雜識> · <馴迅隨筆>을 중심으로 -

손웅택 (한국정신문화연구원, sohn@aks.ac.kr)

1. 연구 동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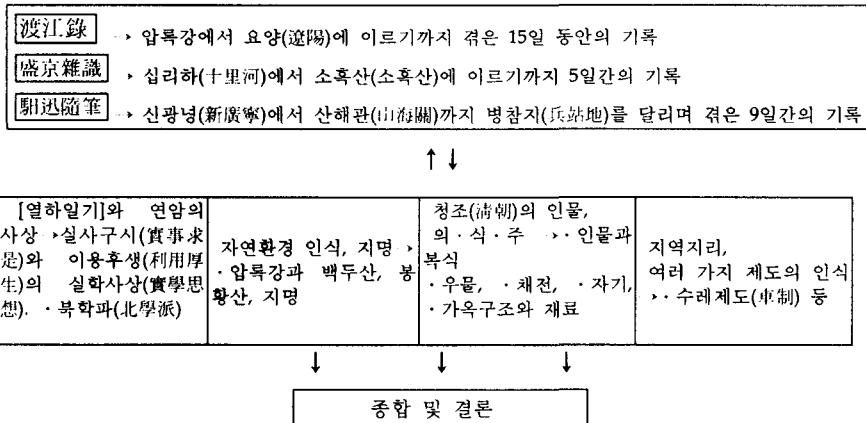
열하일기에 나타난 박지원의 인식이 열하일기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되, ① 그의 눈을 통해 바라 보고 이해한 당시의 산수(자연환경)와 지명에 대한 내용, ② 당시 청조의 의식주 생활과 관련한 내용 및 제도에 대한 인식, 그밖에도 인물, 시가지, 수레 제도 등 청조의 여러 가지 인문현상에 대한 연암의 인식 세계를 들여다봄으로써 당시 淸朝의 자연과 문물, 제도와 우리나라의 그것에 대한 비교를 해 보며,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세 외부세계에 대한 지리적 사유(思惟)를 재음미 해 본다.1)

2. 분석 절차

첫째, [열하일기]의 번역본을 읽으면서 당대의 지리적 현실을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발췌하였다. 둘째, 발췌한 내용들을 유목화하여 분류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각 분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였다.

- ① [열하일기]의 내용을 통해, 당시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.
- ② 당시 청조(淸朝)의 각 인물들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.
- ③ 의식주 생활문화와 관련해 어떤 것들을 묘사했고, 이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가.
- ④ 연암이 답사한 지역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, 이를 통한 지역성 추출은 가능한 것인가.
- ⑤ 청조(淸朝)의 각종 의식과 제도들을 어떻게 보았으며, 해석하고 있는가.
- ⑥ 이상을 통해 18세기 후반 청조(淸朝)에 대한 지리관을 설명할 수 있는가.

3. [열하일기]의 구성과 연구 설계



4. 종합 및 결론

박지원의 "열하 일기"는 18세기 후반(1780)의 당시 중국(청나라) 수도 연경(현재 베이징)을 지나 '열하'까지 다녀오며 보고 느낀 내용을 일기체로 엮은 대표적인 저서이다. 이 책의 <渡江錄>(압록강을 건너며), <盛京雜識>(심양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), <馴迅隨筆>(역마를 달리며 적은 수필)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달된 청조의 문물과 제도를 알 수 있고, 당시 청조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가능하다.

첫째,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 가운데 본받을 것(예; 수레제도, 벽돌과 기와, 도자기 가마, 온돌과 굴뚝의 과학적 구조, 우물 제도 등)과 버려야 할 것(예; 번잡한 상여제도)을 가려서, 좋은 것은 우리의 것으로 본받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.

셋째, 좋은 제도와 문물을 바탕으로 발달된 시가지의 변화함과 발달된 수준은 우리가 빨리 본받아야 한다.

1) 본 연구의 원문해석은 [나랏말싸미 열하일기(술)](엮은 곳: 민족문화추진회)를 대본으로 하였다.